

보도자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18. 11. 09.(금)	
배포 부서 및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최지연 부연구위원(051-797-4713), 황재희 전문연구원(051-797-4728)• 홍보출판실 실장 김혁주(051-797-4381), 행정원 이선우(051-797-4384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

새로운 바다, 제주경제와 만나다

『KMI 해양수산 전국포럼 - JRI 정책토론회』 개최

- 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양창호)은 지난 11월 5일(월)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“새로운 바다, 제주경제와 만나다”를 주제로 한 『KMI 해양수산 전국포럼 - JRI 정책토론회』를 제주연구원(JRI, 원장 김동전), 국토연구원(KRIHS, 원장 강현수)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.
- ☐ 본 행사는 KMI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. 1부는 ‘제주 해양경제도시 조성’과 관련한 3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고, 크루즈관광·항만재생·인력육성 등 제주 해양수산 혁신성장 관련 2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.
- ☐ 이어 ‘해양경제도시의 조성 필요성’을 주제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이 주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-국토연구원장 특별대담이 진행되었다. 특별대담에서는 그간 해양과 항만의 공간적 가치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제주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해양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. 특히, 제주바다의 풍부한 생태적·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, 해양신산업 육성 등 제주도민의 생활수준 개선과 연계하는 해양경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이 제안되었다.
- ☐ 주제발표와 특별대담 결과를 바탕으로 고충석 제주대학교 前총장이 좌장을 맡아 중앙·지방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. 종합토론에서는

해양경제도시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지역정체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. 이어 제주도민이 외부인에 대한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으며, 관광스타트업 등 제주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상향식의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.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제주의 해양자원 활용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경제시범도시 조성방안을 구체화·공식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- ☐ 이번 행사의 주요 성과로는 제주해양경제특구 등 해양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중심으로, 제주 크루즈산업의 수요자로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시장전망,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제주의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, 원도심과 연계한 제주의 항만재생사업 추진방향, 제주 해양수산 인력 육성방안 등 해양수산 분야의 세부사업 추진방안이 도출되었다.
- ☐ KMI와 JRI 관계자는 “본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역부의 24.4%를 보유하는 제주를 해양경제시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논의되었으며,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해양자원과 문화를 종합하여 동북아의 해양주도권을 확보하는 해양도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사진자료

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 균형발전 연구센터 황재희 전문연구원(051-797-4728, jhwang@kmi.re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